

“에너지 절약기기 보급에 경기도가 앞장서”

■ 김인숙 기자 (kis@energycenter.co.kr)



경기도가 주최한 제2회 에너지절약박람회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수원종합운동장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에너지절약박람회는 도내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을 확산하고, 저소비형 에너지 소비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에 처음 실시된 행사.

올해로 2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44개 업체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들을 출품,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경기도 도민들에게 선보였다. 개회식에서는 우수 참가업체 10개사와 에너지절약 수기공모 당선자 20명에 대한 시상식도 가졌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등 신축 대형 건축물에서는 기존의 형광등이나 백열전구 대신에 메탈할로겐라이드, 나트륨등과 같이 조명은 밝으면서 전기료는 절감되는 조명등을 달아야 한다.

도차원의 남다른 에너지절약 노력이 돋보이는 이곳 경기도청의 김기태 공업지원과장을 만나보았다.

▶ 경기도가 이러한 박람회를 주최한다는 점이 이색적인데 행사를 기획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절약 유도방안을 찾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말자’, ‘에너지를 아끼자’와 같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홍보 방식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절약방안은 고효율기기 및 대체에너지 보급확산이라고 보고 도민들에게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개최한 것이 바로 에너지절약박람회입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우고 고효율 에너지기기의 보급을 확산시키는 한편,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225개 도내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ESCO사업 도입을 추진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있는 170개소가 자체예산 또는 ESCO자금으로 고효율기기 교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올해에는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한 나머지 청사에 대해 ESCO진단을 실시, 향후 3년동안 약 10%의 에너지절약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 지난해 1회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실효를 거두었나요?

지난해에는 개최장소가 협소해 대형제품을 선보이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는 이를 보완함으로써 폐열회수장치, 태양광 발전시스템, 대체에너지시설 등 규모가 큰 설비를 전시할 수 있어서 관람객들에게 훨씬 다채로운 시설과 기술을 제공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또 단순한 홍보차원의 행사가 되지 않고 참가업체들에게 실질적인 구매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과 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등 관련단체 실무관계자들의 참관을 유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행사가 되도록 했습니다.

▶ 에너지절약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만의 시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에너지절약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제도적으로 접근, 실천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공동주택 신축시 반드시 에너지절약형 기기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건축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36억원을 투자해 구입비의 50%를 보조해주고 있어 시중가격의 절반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10억5천만원의 지원하였습니다.

▶ 경기도내 ESCO사업 수행실적과 앞으로의 에너지절약시책 추진방향은 무엇입니까?

에너지절약은 공공기관, 산업부문, 민간부문 등 각 분야에서 전 도민이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에서 ESCO사업을 대대적으로 추



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225개 도내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ESCO사업 도입을 추진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있는 170개소가 자체예산 또는 ESCO자금으로 고효율기기 교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올해에는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한 나머지 청사에 대해 ESCO진단을 실시, 향후 3년동안 약 10%의 에너지절약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산업부문에서는 자발적협약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있었던 2001년도 1차 협약 당시 도내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28개 사업장과 5년간 8%의 에너지절약 목표를 약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기기 보급확대를 위해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